

# 전남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교육력 제고, 투명성 확보 등 '유치원 3법' 후속조치 마련

장석웅 교육감 "제도적 뒷받침 못지 않게 자정의지 중요"



전남도교육청이 '유치원 3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오전 청사 2층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치원 3법 개정에 따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명단 폭로 이후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제

도적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됐었으며, 지난 1월 13일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이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의 개정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 학부모 부담

경감 △ 교육력 제고 △ 회계 투명성 확보 △ 교원 처우개선 △ 제도 개선 정비 등 5개 분야 별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만 3~5세 유아 학비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월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만 5세 유아 급식비 1식 2,200원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앞으로 유아 급식비 지원을 만 5세 뿐 아니라 3~4세 유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립유치원 교육력 제고 방안으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현장 인적을 위한 유아·놀이 중심 유치원 운영, 방과후놀이유치원 행복안심 유치원, 전문직학습공동체 지원, 교원 연수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내 전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이용환경 인프리를 구축해 오는 3월 새학기 시작과 함께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재무 회계 컨설팅, 에듀파인 1대1 멘토,

자체사용자교육 등 교육지원청 상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감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신설해 올해부터 월 최대 7만원 씩 지급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출산 및 병가 시 고용안정을 위한 단기 대체강사 인건비 지원, 출장·휴가에 따른 보결수업 기간제 교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유치원 감사처분 양정 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장석웅 교육감은 "이번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신뢰도가 회복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제도 개선 못지않게 사립유치원 자체의 자정 의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유치원 3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제도 정착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 보성교육청, 2020 교육 설명회 개최

보성교육청은 지난 21일 초·중교장 및 업무담당자, 행정실장, 보성교육참여위원, 보성·별교 공공도서관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교육 2020' 설명회를 개최하고 함께 성장하는 혁신보성교육 실현을 위한 뒷짐을 올렸다.

이번 설명회는 '보성교육 2020' 수립방향과 주요정책 과제에 대한 교육지원과장과 행정지원과장의 발표, 전남보성혁신교육지구 및 미을교육공동체 운영계획, 주요사업 안내,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보성교육 2020'은 미래사회를 함께 여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소통과 협력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혁신보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정하고, '전남교육 2020'의 큰 틀을 유지하여 5대 교육지표에 따른 49개 세부과제, 3대 역점과제로 '학생지지활동 강화, 학교 혁신 내실화, 민주적 조직문화', 특색교육활동인 '3보행(의향, 예향, 다향)의 일 계승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백남근 교육장은 '우리가 품은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용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열정과 사랑을 지원하겠다.'라며, 모든 교육가족과 아이들이 자신의 일을 깨고 나와 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따뜻한 동행의 길에 함께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따라 학교지원센터 구축으로 교육 활동 중심 학교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정책들로 이루어졌다. '함께 성장하는 혁신보성교육'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는 힘, 미래를 열어가는 힘,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워내기 위하여 요란한 구호나 불필요한 걸치레를 내세우기보다는 조용하지만 내실 있는 혁신으로 전남교육을 선도하는 역할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백남근 교육장은 '우리가 품은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용비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교직원의 열정과 사랑을 지원하겠다.'라며, 모든 교육가족과 아이들이 자신의 일을 깨고 나와 꿈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는 따뜻한 동행의 길에 함께 해주기를 당부하였다.

보성=안구일 기자

## 광주송정도서관, 겨울방학 강좌 운영

광주송정도서관이 겨울방학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애들이 도서관 가자', '겨울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애들이 도서관 가자' 프로그램은 13~17일 5일 동안 운영됐고 초등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남남 리딩푸드', '수리수리 마술', '톡톡(Talk Talk) 스피치' 등 3개 과정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남남 리딩푸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만들며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눴고, '수리수리 마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선생님의 손짓을 따라했다. '톡톡(Talk Talk) 스피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현재 기상캐스터로 재직 중인 강사의 지도를 받았다. 학생들은 카메라 앞에서 자세를 잡고 뉴스도 읽어보며 자신감을 키우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애들이 도서관 가자'의 모든 수업은 무료로 운영되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줬다. 또 청소년들이 도서관은 흥미로운 곳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도움을 줬다.

조인호 기자

## 광주시교육청, 홍보 기자단 활성화 협약

광주시교육청이 21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광주교육 홍보 기자단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교육 홍보 기자단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협약을 통해 홍보 기자단의

미디어 활용 교육체계 구축에 상호 협력하고, 광주 학생들에게 미디어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장희국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와 협력해 쉽게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 "놀이중심 유치원 운영으로 혁신 교육 실현"

전남도교육청이 올해 현장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유아와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혁신하는 등 맞춤형 유아교육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오후 회순 하나님문화센터에서 공·사립유치원 전임 원장(감), 공립 겸임원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 장학사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남유아교육 2020' 설명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올해 유치원 운영기본 방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 계획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로 유아·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변화한 데 따른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전남유아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 및 유아·놀이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함께 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한

다."는 목표와 4가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4가지 중점 과제는 △ 놀이로 배우는 행복한 유아 △ 자율과 책임 있는 교원 △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 지원과 공감의 철학한 행정 등이다.

우선, '놀이로 배우는 행복한 유아'를 위해서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하고, 놀이와 쉼이 있는 방과후과정 운영, 365 안전 생활학률 진행하기로 했다.

정혜자 혁신교육과장은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유아교육'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은 기자

## 화순교육청, 2020 마을교육공동체 새로운 출발선에 서다

화순교육청은 지난 20일 화순마을교육공동체 공모 심사 결과 마을학교 10교, 중심마을학교 1교, 학교-마을 연계 공동체프로젝트 3팀 등 총 14교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화순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학교 지역민, 교사를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공모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가졌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마을학교를 발굴 선정하기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및 현장심사를 거치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하였다.

화순교육청은 2017년부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을 시작하여

2017년 1교, 2018년 2교, 2019년 5교를 운영하였고, 올해 2020년에는 마을학교 10교, 중심마을학교 1교, 학교-마을 연계 공동체프로젝트 3팀 등 총 14교를 지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가 더욱 더 확대되었다.

화순=박순철 기자

